

전 제

김 영 철

Presupposition

Kim, Young-Chul

..... < 목 차 >

1. 서 론
 2. Frege 의 전제개념
 3. Russell 의 함의이론과 Strawson 의 전제이론
 4. 부정과 전제 · 함의
 5. Sellars 의 화자전제
 6. 이익환의 문장의미 분류
 7. Fillmore 의 전제조건과 화용론적 전제
 8. 전제구문의 의미론적 · 화용론적 설명
- Reference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notions of presupposition, and its semantic and progmatic aspects through the literature on presupposi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rises Frege's initial notion of presupposition (§2) Russell's entailment theory vs Strawson's presupposition theory (§ 3), presupposition vs entailment with reference to the scope of negation (§ 4), Sellars' speaker - presupposition (§ 5), Lee's classification of sentence meaning (§ 6), Fillmore's conditions of presupposition and pragmatic presupposition (§ 7), and semantic and pragmatic explanation of a cleft sentence (§ 7). The discussion on a cleft sentence shows that semantic aspect of presupposition can be treated more adequately as the entailment theory and pragmatic aspect of presupposition as the felicity conditions and conversational maxims. Therefore, so-called presupposition should be explained by pragmatics as well as semantics.

1. 서론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전제 (presupposition)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 이후 언어학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제에 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제를 자연언어의 기술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로 볼 때 제기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정의 (definition)의 문제만해도 의미론 (semantics)의 관점에서 정의하느냐 아니면 화용론 (pragmatics)의 관점에서 정의하느냐가 지금까지의 연구 중 큰 이슈 중의 하나였다. 본고는 전제의 개념 및 그와 관련된 제 문제를 지금까지의 문헌을 통하여 개관, 소개하고, 한 예문을 통해 의미의 여러 국면이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그리고 화용론적으로 설명되는지를 논의한 것이다.

제 2절에서는 전제를 처음 논의한 Frege의 전제개념을 단정 (assertion)과의 구별과 아울러 소개하였다. 제 3절에서는 Frege에서 이어지는 Russell과 Strawson의 주장을 특히 문장의 진리치 (truth-value)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제 4절에서는 Russell의 함의와 Strawson의 전제의 차이점을 부정의 영향권 (scope of negation)과 관련하여 논한 후 소위 함의이론 (entailment theory)과 전제이론 (presupposition theory)중 어느 이론이 더 합당한지를 따져보았다. 제 5절에서는 Russell, Strawson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전제개념을 다룬 Sellars의 주장을 논하였고 제 6절에서는 이익환의 문장의미에 대한 분류와 함께 그의 함의와 함축을 소개하였다. 제 7절에서는 Fillmore의 전제조건과 화용론적 전제를 논하였고 제 8절에서는 분열문 (cleft sentence)을 예로 들어 의미의 어떤 국면이 의미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국면이 화용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소위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함의이론으로 설명되는 국면은 의미론에서, 적정 조건 (felicity condition) 및 대화격률 (conversational maxims)로 설명되는 국면은 화용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Frege의 전제개념

여기서 일컫는 전제 (presupposition)는 삼단논법에서 결론 (conclusion)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인 전제 (premise)와는 구별된다. 여기서의 전제는 일차적으로 단언 (assertion)과 대조되는 개념이다.¹⁾ 다음 이정민(1975:148)의 예문을 보자.

1) 이정민 (1975)은 'assertion'을 '단언' 대신 '주장'으로 번역해 쓰고 있다.

- (1) Mary is a virgin.
- (2) It surprised many people that Mary was a virgin.

윗 문장 (1)은 하나의 단언으로서 Mary가 과연 처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것의 참 거짓을 따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하여 문장(2)의 보문 (embedded sentence) 인 ‘Mary is a virgin’은 처음부터 참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여지가 없고 다만 주절인 ‘It surprised many people’만이 단언부분으로서 참 거짓을 따지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처음부터 참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그 단언 부분에 대하여 전제 (presuppose)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전제란 처음부터 사실로서 인정된 명제 (proposition)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의 개념을 맨 먼저 논의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Gottlob Frege였다. Frege는 "On Sense and Reference"에서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mp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Frege, 1892: 69)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단정된 한 문장이 진리치를 갖는 진술 (statement)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지칭표현 (referring expression)이 그것에 해당 되는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칭해야 한다는 필연적 전제를 주장한 것이다. Frege는 한 문장과 그 부정, 그리고 지칭표현인 고유명 (proper name)과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들고 있다. (Frege, 1892: 69)

- (3) a. Kepler died in misery.
- b. Kepler did not die in misery.
- c. Kepler did not die in misery, or the name ‘Kepler’ has no reference.

윗 문장 (3a)를 단언할 때에는 ‘Kepler’가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전제는 그 부정인 (3b)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Frege의 주장이다.²⁾ 만일 (3a)에 그러한 전제가 없다면 (3b)가 아니라 (3c)가 되어야 한다고 Frege는 지적하고 있다.

2) "That the name ‘Kepler’ designates something is just as much a presupposition for the assertion, ‘Kepler died in misery’ as for the contrary assertion". (Frege, 1892: 69)

3. Russell의 함의이론과 Strawson의 전제이론

Frege에서 비롯된 초기적인 전제개념은 정관사가 붙은 표현 (definite expression)이 든 문장에서 그 정관사 명사구에 해당하는 존재가 없을 때 그 문장의 진리치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하여 Russell과 Strawson의 대립된 견해로 발전한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다음 문장을 보자.

(4) The king of France is bald.

위 문장 (4)가 프랑스 왕에 대한 기술이고, 프랑스는 현재 공화국이어서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역설적인 기술이 된다. 모든 문장이 二值的 진리치를 지니도록 되어 있었던 고전논리 (classical logic)에서는 전제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Russe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If 'C' is a denoting phrase, say 'the term having the property F', then 'C has the property ϕ ' means 'one and only one term has the property F, and that one has the property ϕ ' (Russell, 1905:53)

위의 주장을 문장 (4)에 적용하면 (5)와 같이 분석되고 (6)과 같은 공식을 얻게 되어 결국 (7)과 같이 해석된다.

(5) There is an entity x such that

(i) x is (a) king of France,

(ii) there is no other entity $y(y=x)$ which is king of France, and

(iii) x is bald.

(6) $(\exists x)(K_x \ \& \ \sim(\exists y)(y=x \ \& \ K_y) \ \& \ B_x)$

(7) There is one and only one king of France and he is bald.

(5~7)에서 볼 수 있듯이 Russell은 프랑스 왕의 부재, 즉 $\exists x(K_x)$ 의 거짓은 공식 (6) 전체에 진리치 f 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으므로 문장 (4)의 진리치를 "거짓"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Russell의 二值체계에 반대하여 Strawson은 三值체계를 주장한다. Strawson (1950)은 문장 (4)가 의미가 있는 (meaningful) 문장이라는 점에서는 Russell과 같은 견해이지만, 모든 의미있는 (significant) 문장의 사용이 오직 "참"이라는 두 개의 가능한 진리치를 갖는 체계를 반대한다. 즉, 만일 문장 (4)가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지칭하는 지칭표현이라면 그것은 진술 (Statement)일 수는 있으나, 그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술이므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neither true nor false) 진리치 즉, 진리치 공백 (truth-value gap)을 갖게 된다고 Strawson은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미 (meaning)는 문장 (sentence)의 자질이고 지칭과 진리치는 진술의 자질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문장 (4)는 (5~7)에서 프랑스 왕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문장 (4)와 발화문 (4)는 서로 모순관계가 되어 Russell의 二直체계에서처럼 "거짓"이 아니라 "참도 거짓도 아닌" 제3의 진리치를 갖게 된다.

우리는 위에서 본 Russell의 주장을 함의이론이라고 하며, Strawson의 주장을 전제이론이라고 흔히 일컫는데, 여기서 전제와 함의의 차이를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Horn, 1972: 6~7)

- (8) a. All John's children are asleep.
- a'. All John's children are not asleep.
- b. John has children.
- b'. John does not have children.
- c. Some of John's children are asleep.
- c'. None of John's children are asleep.

첫째 함의에 적용되는 대우관계 (contrapositive relation : $p \supset q \equiv \sim q \supset \sim p$)가 전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예문에서 (8a)는 (8c)를 함의하고 (8c)의 부정인 (8c')은 (8a)의 부정인 (8a')을 함의한다. 그러나, (8a)는 (8b)를 전제하지만 (8b)의 부정인 (8b')은 (8a)의 부정인 (8a')을 전제하지 않는다. 둘째로 전제는 부정문인 경우에도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함의는 그렇지 못하다. 즉 (8a)와 (8a)의 부정인 (8a') 모두 (8b)를 전제로 하지만, (8a)의 부정인 (8a')은 (8a)의 함의인 (8c)를 함의하지 못한다.

4. 부정과 전제 · 함의

앞 절에서 본 전제와 함의의 차이점 중 부정문과 관련된 차이점은 전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전제관계의 여부를 결정짓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점이다. 여기서는 부정과 전제, 함의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우선 앞에 인용한 예문 (4)와 그 부정문을 예로 들어보자.

- (4) The king of France is bald.
 (9)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10)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Strawson의 전제이론에 따르면 문장 (4)나 그 부정문인 (9)나 모두다. (10)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Russell의 함의이론에 따르면 문장 (9)는 중의성 (ambiguity)을 갖는다. 즉, 부정연산자 (negation operator) 'not'은 문장 (4)의 단언 (assertion)과 그 부수적 의미(여기서는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는 함의 또는 전제)를 동시에 부정하는 외부부정 (external negation)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고, 문장 (4)의 단언만을 부정하는 내부부정 (internal negation)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장 (9)는 내부부정의 해석으로는 다음 (11a)를, 외부부정의 해석으로는 (11b)를 갖게 되고 그것을 공식화하면 각각 (12a)와 (12b)로 된다.

- (11) a. There is an entity that is king of France and is not bald.
 b. 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is an entity which is king of France and is bald.
 (12) a. $(\exists x) (K_x \ \& \ \sim (\exists y) (y=x \ \& \ K_y) \ \& \ \sim B_x)$
 b. $\sim (\exists x) (K_x \ \& \ \sim (\exists y) (y=x \ \& \ K_y) \ \& \ B_x)$

(11~12)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의 중요한 차이는 내부부정에서는 소위 함의가 부정되지 않고 여전히 참 명제로 남아 있는 데 반하여 외부부정에서는 함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함의이론에서는 문장 (4)의 부정인 (9)는 (4)의 함의문인 (10)을 부정하는 해석과 (10)을 부정하지 않는 해석 둘을 갖게 된다. 그러나

Strawson의 전제이론에서는 문장 (4)의 부정인 (9)가 (4)의 전제가 되는 (10)을 부정하는 해석 즉, 함의이론에서의 외부부정의 해석은 결코 갖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Russell의 함의이론과 Strawson의 전제이론 중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에 대해, Wilson (1975)은 전제이론보다 함의이론이 더 합당함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논하고 있다.

(13) *Malory knows that mongeese subdivide, because mongeese don't subdivide.

(14) Malory doesn't know that mongeese subdivide, because mongeese don't subdivide.

(15) Mongeese subdivide.

윗 문장 (13)은 의미적으로 비문이며, (14)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용인되는 문장이다. 여기에서 (13)이 비문임은 전제이론이나 함의이론이 다같이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4)가 용인되는 문장임은 전제이론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못하고 함의이론에 의해서는 잘 설명될 수 있다. (13~14)의 주절에 쓰인 'know'와 같은 동사는 사실상 동사 (factive verb)³⁾로서 그 아래에 오는 보문(embedded sentence)이 참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제이론에 따르면 (13)의 경우 주절인 'Malory knows that mongeese subdivide'는 (15)를 전제한다. 그런데 (13)의 뒷부분인 'because mongeese don't subdivide'는 같은 문장의 주절인 앞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15)를 부정하여 삭제(cancel)한다. 이처럼 (13)은 의미적으로 모순을 초래하므로 쉬 비문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함의이론에 의해서도 유사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전제이론의 '전제'라는 용어 대신 '함의'를 대치하면 똑같은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14)는 전제이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제이론에 따르면, (14)의 경우 주절인 'Malory doesn't know that mongeese subdivide'는 그 긍정문인 (13)과 마찬가지로 (15)의 명제를 전제한다. 그런데 이 전제가 (14)의 종속절인 후반부에서 부정되어 삭제되고 있다. 따라서 전제이론에 의하면 (14)는 의미적으로 모순이므로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4)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용인되는 문장이며, 그런고로 전제이론은 부정문인 (14)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에 함의이론은 (14)가 용인되는 문장임을 잘 설명해 준다. 즉, 함의이론에 따르면 'Malory doesn't know that mongeese subdivide'는 위에서 본대로 중의성을 가지며, 그 중 한가지 해석은 이 문장의 긍정문이 갖는 함의 (15)를 부정하는 외부부정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 외부부정의 해석에 따

3) Kiparsky & Kiparsky (1971)와 Karttunen (1971) 참조.

르면 문장의 뒷부분에서 부정되는 내용과 의미상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함의이론은 (14)가 의미적으로 완전히 용인됨을 잘 설명해 준다. 전제이론의 이러한 문제때문에 Sinith & Wilson (1979: 165)은 전제라는 용어를 피하고 대신 배경함의 (background entailment)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5. Sellars의 화자전제

앞에서 논의한 전제와 함의는 그 개념의 정의에 있어 관련된 문장들의 진리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진리조건적 의미론 (truth-conditional semantics)의 범위 내에서 문장간의 의미관계를 밝히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좀 달리 Sellars (1954)는 전제를 화자 (speaker)가 갖는 믿음 (belief)으로 생각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Sellars, 1954: 207 - 208)

An utterance of "The table over here is large", does indeed presuppose that there is one and only one table "over here." To say that the utterance presupposes this is to say that it is correct to make the utterance only if one believes there is one and only one table "over here" and that this belief is shared by the listener. Furthermore, to say "That's false" when told that the table is large equally *presupposes* that the uniqueness condition is satisfied: where this in turn means that it is correct to say "That's false" only if one believes the uniqueness condition to be satisfied and that the original speaker shares this belief. But even though the original utterance and the reply presuppose that the uniqueness condition is satisfied, the utterance is nevertheless *false* if the uniqueness condition is not satisfied, *even though it is not correct to say that it is false unless one believes that the condition is satisfied.*

위 인용문을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 (16)의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는 (17)의 a와 b를 모두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16) The table over here is large.

(17) a. There is one and only one table over here.

b. The listener believes that there is one and only one table over here.

이와 같은 Sellars의 견해는 Strawson의 전제개념과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제되는 것이 다르다. Strawson에 따르면 (16)의 전제는 (17a)이지만, Sellars에 의하면 (16)의 전제는 화자가 (17a)와 (17b)를 동시에 믿는 것이 된다. 둘째로, 전제실패의 경우 그 결과가 다르다. Strawson의 경우에는 (17a)가 거짓이면 (16)은 참도 거짓도 아닌 (neither true nor false) 진술이 된다. Sellars의 경우에는 전제된 것이 실패되면 화자는 "잘못" (incorrectly) 말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Strawson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논리적 입장에서 진리조건적 방법에 입각하여 정의되고 있는 반면에 Sellars의 전제는 성공적인 의사전달 조건과 연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Strawson의 개념은 문장전제 (sentence - presupposition)이며, Sellars의 개념은 화자전제 (speaker - presupposition)라고 할 수 있다.

화자전제가 각각 다름을 다음 세 문장에서 보자. (이익환, 1985 : 210)

(18) JOHN seduced Mary.

(19) John SEDUCED Mary.

(20) John seduced MARY.

(대문자는 화자가 강세를 주어 말하는 부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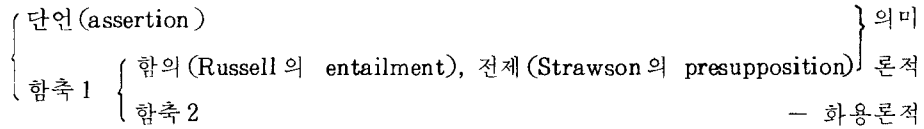
위 문장에서 (18), (19), (20)을 각각 발화할 때마다 화자의 부가적인 전달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국면은 진리조건에 입각한 정의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Sellars의 화자믿음 (speaker - belief)의 개념으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화자믿음에 기인하여 전해지는 부가적 의미는 화자가 발하는 맥락 (context)과 관련이 있으므로 진리조건적미론 (truth - conitional semantics)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용론 (pragmatics)에 의하여 설명하여야 마땅할 의미국면이라고 하겠다.

6. 이익환의 문장의미 분류

이익환 (1985 : 210)은 Grice (1975)의 용어 ' 함축 ' (implicature)을 참고하여 문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21) 문장의 의미



앞서 논의한 Russell의 함의(entailment)나 Strawson의 전제(presupposition)는 Grice의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과 유사하고, Sellars의 개념으로 본 전제는 Grice의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유사하다고 이익환은 주장한다. 그래서 위 (21)에 쓰인 '함축'은 광의적 함축(즉, 함축 1)으로 쓰이면, 진리조건적(즉, 의미론적) 설명이 가능한 Russell의 함의 또는 Strawson의 전제와 진리조건적 설명이 어려운(즉, 화용론적인 설명이 가능한) Sellars의 전제를 다 포함하고, 협의의 의미로 쓰이면 후자만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이익환(1985: 211f)은 (21)의 분류에서 의미론적 설명이 가능한 함축은 함의⁴⁾로, 그러지 못한 경우는 함축 2⁵⁾로 칭하기를 제안하면서, 함의와 대조되는 함축 2의 중요한 특징으로 삭제가능성(cancellability)을 들고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22) *The king of France is bald, but there is no king of France.

(23) There is a king of France

윗 문장 (22)에서 앞부분은 (23)을 함의한다. 그러나 (22)의 뒷부분은 이 함의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22)은 명백히 의미적으로 모순이며, 따라서 옳은 문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22)의 앞부분이 함의하는 (23)은 삭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함축 2는 맥락(context)에 의존하는 것으로 쉽게 삭제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4) John wants to meet Mary.

4) 여기에서의 '함의'란 Russell의 함의(entailment), Strawson의 전제(presupposition) 혹은 의미론적 전제(semantic presupposition), Grice의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 등으로 불리는 의미국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5) 여기에서의 '함축 2'는 보통 화용론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 Grice의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등으로 지칭되는 의미국면을 나타낸다.

(25) John likes Mary.

(26) John wants to meet Mary, but he doesn't like her.

John 과 Mary 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에서는 한 남자가 다른 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통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24)의 문장으로부터 (25)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장 (24)의 어휘적 특성이나 문장 형식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함의가 아니며, 가정된 특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함축(즉, 함축 2)이다. 이러한 함축 2는 (26)에서 볼 수 있듯이 삭제되어도 전체적으로 의미적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익환 (1985 : 213)은 이상과 같은 주장으로 (21)의 분류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전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함의의 국면과 화용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함축 2로 나누고 이를 모두 합쳐서 함축 1로 종합하려는 시도로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의하고 있다.

7. Fillmore의 전제조건과 화용론적 전제

Fillmore는 문장의 전제를 "those conditions which must be satisfied before the sentence can be used [to make an assertion, ask a question, give a command, express a feeling, etc.]."라고 정의내렸다. 예를 들어 "please open the door."가 명령문으로 쓰일려면 대화표적인 LT(Locutionary Target)가 어느 문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표현행위의 시점인 TLA(the Time of the Locutionary Act)에 있어서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Fillmore는 상기 문장의 전제조건을 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Fillmore & Langendoen, 1971 : 37 - 38)

- (i) There are certain presuppositions having to do with fact that the LT (Locutionary Target) must understand English, be believed by the LS(Locutionary Source) to be awake, not be totally paralyzed, etc., which have to do with "questions of 'good faith' in speech communication"
- (ii) There are presuppositions about the existence and specificity of the door, and these relate to the "use of the definite article".
- (iii) There are presuppositions about the closed state of the door which must be

treated as properties of the verb *open*.

위의 세 범주 중 전제조건 (i)은 앞서 논의한 Sellars (1954)의 화자전제 (speaker - presupposition)와 유사하며, Austin (1962)의 행복조건(happiness condition), Searle(1969)의 적정조건 (felicity condition), Grice (1975)의 대화격률 (conversational maxims)들과 밀접히 관련된다.⁶⁾ 그리고 전제조건(ii)는 Frege, Strawson의 존재의 전제(existential presupposition)와 관련되며, 전제조건은 (iii)은 어휘적 전제⁷⁾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제조건 (i)이 시사하고 있는 화용론적 전제를 적정조건과 대화격률에 의해 정의하고자 한 논의를 살펴보자. 우선 적정조건에 의거하여 전제를 정의내리고자 했던 자들은 무엇보다도 주어진 맥락 내에서 화자와 청자가 갖는 믿음 (belief)을 중시하여 적정조건을 이 믿음에 한정하려고 노력했다. 즉 화용론적 전제의 정의를 "S₁이 주어진 맥락에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S₂가 같은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의 믿음(belief)안에 있으면 S₁이 S₂를 전제한다"고 하였다. (Dinsmore, 1979 : 84). 이러한 적정조건은 Grice의 대화격률과도 유사한데, 다음과 같은 대화 맥락을 보자. A가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차 옆에 서 있고, B가 A쪽으로 가까이 접근해 온다. A와 B 사이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다. (Grice, 1975 : 7c)

(27) A: I am out of petrol

B: There is a garage round the corner.

(28) The garage is, or at least may be, open.

(29) The garage has petrol to sell.

위의 (27)에서 B가 (28)과 (29)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소위 Grice의 대화격률 중 "관련성 격률"을 어기는 셈이 된다. 즉 (27)이 성공적인 대화가 되려면 우리는 B가 이 격률을 어기지 않는다고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B가 (28)과 (29)를 함축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화자와 청자의 믿음 (belief)을 바탕으로 하는 적정조건과 유사한 것이 되며, 결국 적정조건과 대화격률은 화용론적 전제를 정의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앞절 이익환의 함축 2의 의미 국면에 속한다고 하겠다.

6) Austin(1962)의 행복조건, Searle(1969)의 적정조건, Grice(1975)의 대화격률에 대해서는 배기무·김영철의 "화용론 연구" (한국해양대학 논문집 제 19집, 1984. 4)를 참고할 것.

7) 명사 'bachelor'는 'having never been married'라는 고유의 의미 외에 'human, male and adult'로 서술되는 속성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다.

8. 전제구문의 의미론적 · 화용론적 설명

본절에서는 소위 전제구문으로 여겨지는 분열문 (Cleft sentence)을 예로 들어 지금까지 논의한 전제의 여러 국면을 의미론적으로, 그리고 화용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문장을 보자.

(30) a. It is John who left.

b. Someone left.

위에서 (30a)는 (30b)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30a)는 (30b)를 함의(entail)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만일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면 John이 떠났다는 것은 사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상 그러하다. 다만 이 관계를 의미적 전제라고 보기 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30a)를 발화하는 화자가 (30b)를 단언(assert)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미론적 전제의 개념보다 의미론적 함의의 개념이 더 타당함은 이미 3절에서 논의된 바이지만, 다시 한 번 (30a)의 부정문을 보기로 하여 살펴보자.

(31) It isn't John who left.

(32) It is not the case that it is John who left.

(30a)의 부정문은 (31)과 (32)의 두 가지 구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뜻과 논리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33) There is someone who left and he isn't John.

$(\exists x) [\text{left}(x) \ \& \ \neg[\text{John} = x]]$

(34) 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is someone who left and that someone is John.

$\neg(\exists x) [\text{left}(x) \ \& \ [\text{John} = x]]$

의미적 전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31)을 (30a)의 부정으로 생각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31)이 (30a)의 부정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30a)의 부정문은 소위 외부부정(external negation)이라 불리는 (32)이다. (32)의 해석 (34)에 따르면 (30a)의 부정문은 (30b)를 함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긍정문의 부정이 동시에 함의하는 제 3의 명제가 그 긍정문의 전제라는 의미적 전제이론에 맞지 않게 된다. 한편 (32)는 (30b)의 부정에 의해서 함

의되므로 (30b)가 거짓이면 (30a)도 거짓이 된다는 함의이론에 맞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분열문을 두고 소위 전제라고 주장하는 개념은 함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지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31)이 (30b)를 함의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32) 역시 (30b)를 적어도 암시(suggest)하는 듯하다는 사실이다.(Boer & Lycan, 1976: 2) 이러한 국면은 함의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Boer & Lycan (1976: 27 f)은 화용론적 설명을 한다. 이들에 의하면 (32)는 (30b)를 잉여적으로(residually) 암시한다. (30a)는 다음 (35)의 변형이다.

(35) John left

(30a)과 (35)의 화용론적 차이는, (30a)에서는 행위자(agen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35)에서는 행위자의 역할이 동등하다. 따라서 (30a)는 John의 행위에 초점이 주어지며, 'who lef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데 부정문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화용론적 일반 원칙이 있다.

(36) H 원칙 : 표층구조에서 강조구문을 포함하는 문장이 외부적으로(externally) 부정되면 강조점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32)는 (30a)의 외부부정이므로, (36)의 원칙에 따라 (32)는 여전히 행위자(agent)에 강조점이 있다. 그리고 (34)의 논리식에서 볼 수 있듯이 (32)의 문장은 [left(x)]가 거짓이거나 [John = x]가 거짓이면 성립한다.⁸⁾ [left(x)]가 거짓이 된다는 것은 다음이 참이라는 뜻이 된다.

(37) No one left.

그리고 [John=x]가 거짓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31) 즉, (33)이 참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부분적으로 (30b)가 참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32)를 발화한 화자가 (37)을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며, 또 같은 화자가 (31)도 전제하지 못할 수 있다. (32)가 발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 증거가 불확실하여 (37)과 (31)중에서 어느 것인지 확실히 정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특별히 (31)의 구문에 나타나는 의미적 요소를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처럼 불확실한 증거를 갖는다는 가정은 (32)에서 행위자(즉, John)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대화의 참여자들은 (32)도 (31)과 같이 주어의 행위자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는 면에서 (32)에 대한 증거(evidence)로 선뜻 (31)을 믿는다. 이렇게 하여 (32)가 (30b)를 암시하는

8) 논리식에서, $\neg(p \& q) \equiv \neg p \vee \neg q$.

듯하다는 직관을 설명한다. 이것은 H원칙과 Grice의 격률이 참고되고 있으므로 화용론적 설명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영어 분열문이 갖는 소위 전제의 의미론적 국면은 의미론적 함의이론으로, 그리고 화용론적 국면은 적정조건과 대화격률을 이용한 화용론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분열문에 있어서 소위 전제라고 불리는 의미 국면 중 의미론적인 것은 ‘함의’에 속하고 또 위에서 논의한 ‘암시’라고 한 국면은 ‘함축 2’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배기무, 김영철, (1984) 「화용론 연구」 한국해양대학 논문집 제 19 집.
- 신승윤, (1983) 「전제」 동국대학교 경주분교 논문집, 제 2 집.
- 이익환, (1985) 『의미론 개론』 서울 : 한산문화사.
- 이정민, (1975) 「전제」 <영어영문학> No. 53. 한국영어영문학회.
- Austin, J.L. (1962) *How to Do Thing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 Press.
- Boer, S.E. & William G. Lycan. (1976) *The Myth of Semantic Presuppos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 Ling. Club.
- Dinsmore, J. D. (1979) *Pragmatics, Fromal Theorg, and the Analysis of Pre-suppos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 Ling. Club.
- Fillmore, C. J. & D.T. Langendoen, eds. (1971)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Frege, Gottlob. [1974 (1982)] "On Sense and Reference", in Zabeeh et al., eds.
(1974) *Readings in Semantic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 Garner, R. (1971) "Presupposition in Philosophy and Linguistics", in Fillmore &
Langendoen. eds. (1971).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Vol. 3.
- Horn, L.R. (1972)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Logical Operators in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LA.
- Karttunen, L. (1971) "Implicative Verbs", *Language*, 47.
- Kempson, R. M.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Kiparsky, P. & C. Kiparsky. (1971) "Fact", in Donna Jo Napoli & E.N. Rando,
eds. (1979) *Syntactic Argumentation*. Georgetown Univ.
- Russell, B. [1974 (1905)] "On Denoting", in Zabeeh et al., eds. (1974).
- Searle, J.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ellars, W. (1954) "Presupposing", *Philosophical Review*, 63.
- Smith N. & D. Wilson (1979) *Modern Linguistics: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Penguin Books.
- Strawson, P. F. [1974 (1950)] "On Referring", in Zabeeh et al., eds. (1974).
- Wilson D. (1975) *Presuppositions and Non-Truth-Conditional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Zabeeh, F., E.D. Klemke & Arthur Jacobson, eds. (1974). *Readings in Semantic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